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4

“우리도 함께 뛰다”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지역경제 살리는 국세행정 선언

■ 광주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와 성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신경 쓰지 않고 생업에 매진하도록 납세자 중심의 적극 서비스 행정을 펼쳐겠습니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출사표다.

최근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납세자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지역경제도 힘든 가운데, 공무원들이 팔 걷고 나서서 활기를 전달하겠다는 각오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특히 김형균 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민들과 함께 달리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출전을 결심했다.

김 청장은 지역경제의 중추인 우수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무부담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자금지원, 관료확대 등을 골자로 더욱 보편 발전시켜 나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동

력을 제공할 생각이다.

김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번 마라톤 대회 출전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더 힘들어야만 국민·납세자 모두가 더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도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 3·1절 마라톤 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가 편안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평소 테니스를 통해 건강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여유있는 레이스를 자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새벽을 여는 의미 있는 대회에 직원들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참여 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모두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기(56) 운영지원과장은 평소 스포츠 레저로 다져온 유연성과 건강을 이번 대회에서 자랑할 계획이다. 그는 “5km쯤이야”를 외치며 선두질주를 자신하고 있다. 이현민(여·53) 징세과장은 가정주부와



지역경제 살리기 참여역할을 다짐하는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장을 병행하며 운동과는 담을 쌓았으나 이번 대회 출전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강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그녀는

화합·친목 다지며 완주 기대

최근 집 주변을 뛰며 완주를 위한 컨디션 조절에 나서는 등 스타트 총성을 기다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재찬(55) 조사1국 조사1과장은 등산과 배드민턴으로 다져온 체력으로 10km 레이스가 없어졌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문동호(42) 조사관은 평소 운동을 멀리했던 습관을 버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해 초등생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뒀다. 이날도 아이들과 함께 5km를 달리며 추억만들기를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상을 밝히는 전기인들의 무한질주

■ 전기공사협 전남도회

“국가 백년대계의 기반이 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에너지를 가정과 산업현장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전기사랑동우회’가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다짐했다.

전기사랑동우회는 이번 3·1절대회가 마라톤대회 첫 출전이다. 전체 860여 회원 중 50명이 뛰었다. 처녀 출전인데도 전기인들의 친목 도모가 목적인 만큼 모두 5km에 도전해 완주한다는 목표다.

가정·산업현장 안전 도우미

류재선(53·금강전력 대표)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장은 “전기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현대 문명을 일으킨 고마운 에너지”라며 “전남 전기인들이 함께 뛰며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산악인이다.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 원정을 수차례 이끈 알파리니스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전기사랑동우회’는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힘찬 질주를 다짐했다.

다. 류 회장은 자신만이 아닌 회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산악회를 만들고 매년 골프대회도 열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2006년부터 8000여만원을 들여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재난취약 가구 400여 곳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활동을 무료로 펼쳤으며, 매월 한차례 전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연말연시에는 쌀과 라면 등 생필품(10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이웃돕기 성금(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층·독거노인에 봉사

정태운(35) 남부전력 대표이사는 임진강등밀마라톤·전기사랑마라톤에 단골 출전하는 마라톤 마니아다. 진도읍에서 활동

하는 정 대표는 매일 진도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고 틈틈이 회사 뒷산을 오르며 몸을 다지고 있다.

김광길(47) 덕인전력 대표이사는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초”라며 “떨어진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쓰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 더 없이 좋다”고 마라톤을 예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진규 쇼트트랙 월드컵 2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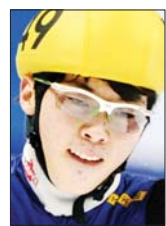
15년전 불법체류자에서 美 쇼트트랙 스타로

불타 이청용, 시즌 7호 어시스트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한국 쇼트트랙의 유망주 노진규(경기고·사진)가 2010-2011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노진규는 지난 13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날 1000m 2차 레이스에서 1분26초661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500m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딴 노진규는 이날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트레비스 제이너, 앤서니



로벨로 등 두 명의 미국 선수가 펼치는 집중 견제를 뚫고 간발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노진규는 지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1500m와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쇼트트랙의 기동으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여자 1000m에서 김담민(부림중)과 황현선(세화여고)이 나란히 결승에 올랐지만 캐서린 로이터(미국)에 밀려 아깝게 2, 3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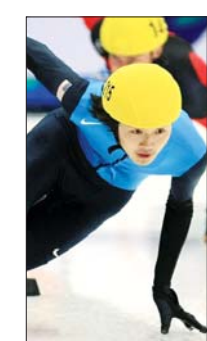
한국계 사이먼 조, 쇼트트랙 월드컵 500m 금

15년 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한국계 쇼트트랙 선수 사이먼 조(20·한국명 조성문·사진)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성문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m에서 42초157만에 결승선을 통과, 폴 스탠리(영국)를 0.117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기회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민자의 아들이 갖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는 순간이었다.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문은 먼저 미국에 가 있던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15년 전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 한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야 했다. 조성문은 11살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연합뉴스



한때 수도와 전기까지 끊길 정도로 어려운 생활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 덕에 스케이트 위나간 조성문은 2007-2008시즌 때 15살의 나이로 대표선수에 뽑히면서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 사상 최연소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블루 드래곤’ 이청용(23)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7호 도움을 기록했다.

이청용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불타의 리버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턴과 홈 경기에 후반 교체 투입돼 2-0을 만드는 대니얼 스테리지의 득점을 어시스트했다. 빛속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2-0으로 이긴 불타는 9승9무9패를 기록하며 승점 36점이 돼 8위 자리를 지켰다. 7위 선덜랜드(9승10무8패)와는 승점 1점 차이다. 지난 10일 터키 트리브존에서 열린

터키와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는 무릎 통증으로 뛰지 않았던 이청용은 후반 15분 매튜 테일러와 교체돼 그라운드

에 나섰다. 이청용은 후반 22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개리 케이힐이 공중으로 띄워준 공을 헤딩으로 스테리지에게 연결했고 스테리지가 달려들며 그대로 왼발슛, 에버턴의 골 그물을 시원하게 갈랐다.

이청용은 지난해 12월 27일 웨스트브롬과 경기에서 시즌 6호 도움을 기록한 뒤 1개월 만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연합뉴스